

위로부터 난 지혜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십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개역, 야고보서 3:13~18]

오래 전에 들은 얘이지만 경북여고 출신들은 팔자가 좀 세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일부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경북여고가 어떤 학교인지 아십니까? 적어도 뽕뽕이 돌리기 이전에는 경상북도에서 가장 우수한 여자들만 모인 학교였습니다. 치마에 하얀 옆줄이 있었는데 대구에서는 '칼찬 여자들'이라고 하더군요. 무서운 여자들이라는 애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학교를 나온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팔자가 썰까요? 모르긴 몰라도 똑똑하다는 것이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공부 잘 하고 똑똑한 것이 참된 지혜가 아니면 오늘 본문이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 답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쓴 글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고 하다보니 야단치는 듯한 말씀이나 경고성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과격하다 싶을 만큼 많이 강조하는 것이 혀에 대한 것입니다. 어찌면 가장 쉽게 저지르는 실수가 말에 대한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혀에 대해서 엄중한 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신랄하다 싶을 정도로 경고성 메시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를 재갈 먹이지 않으면 절대로 경건하지 못하다는 애깁니다. 할말 안 할말을 분간하지 못하면 결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혀에 재갈을 물리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면 안된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것이 혀라는 것입니다.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혀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런 혀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18절,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십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런 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화평으로 십어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느냐 입니다.

답은 13절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어느 단어가 가장 핵심입니까? '온유함으로' 라는 말입니다. 온유함으로 지혜의 선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참된 지혜는 온유함입니다. 똑똑해서 남의 잘못을 잘 지적하고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지혜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온유함이 참된 지혜요 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좀 안다고 해서 함부로 나서는 것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가끔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 가시거든 제발 좀 나서지 마십시오. 제가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학부형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좀 안다고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나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을 본인 앞에서는 칭찬을 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좋아하지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수영을 잘 하는 사람과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 익사할 가능성이 누가 높지요? 수영을 잘 하는 사람이 그런 위험에 쉽게 노출됩니다. 못하는 사람은 물 근처에 얼씬도 않기 때문에 확률이 낮아요. 혹시 가야 한다면 준비를 잘 하고 가기 때문에 위험에 덜 노출됩니다. 같은 이치로 법을 잘 알아서 법을 잘 따지는 교회와 법에 관한 얘기가 전혀 없는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평안할까요? 참 이상하지만 법에 대해서 잘 아는 교회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부부사이에 '뱀대로 하자'는 말이 나오면 깨어지기 일보직전입니다. 법을 잘 알고 따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처사인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잘 따지는 사람, 남의 잘못을 잘 지적하는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티를 내는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미련하다 싶을 만큼 온유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겁니다.

야곱과 이삭을 비교해 보세요. 누가 지혜롭습니까? 언뜻 보면 지혜롭고 약아빠진 것은 야곱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미련곰탱이입니다. 세상에 아버지가 죽으려고 달려드는 데도 '뭉으세요' 하고 손 내밀었던 아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내놓으라고 하자 재산 1호라고 하는 우물을 빼앗기고 물러서는 사람입니다. 도무지 싸울 생각이 없는, 정말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지혜로운지 보세요.

야곱은 온갖 잔머리를 다 굴러가며 살았습니다. 나중에 자기 생애를 되돌아 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습니다. 야곱은 나름대로 피도 많고 잔머리를 크게 굴렸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한마디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큰 어려움 없이, 정말 큰 고생 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산 사람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난 야곱같이 잔머리 굴리며 살아야겠냐? 그럼 그렇게 사십시오. 말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 누가 뭐라고 그러면 '아, 예 그렇죠' 이런 대답과 과격한 말, '야,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렇게 해야지' 하는 두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지혜롭다는 겁니까? 남이 보기에든 그렇고 자기 자신이 보아도 '이만하면 똑똑하지 않느냐?' 해서 과격한 말을 하지만 노를 격동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유순한 대답, 미련하다 싶어도 그것이 분노를 쉬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유순한 대답이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고 합니다. 미우면 맞는 말이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내 말이 어디가 틀렸는데?'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이 다 맞아도 시기하는 마음이나 다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맞는 말인데도 다투다 보면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말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백화점에 8년이나 된 양복을 가지고 와서 '백화점에서 명품 양복을 사면 10년은 입을 줄 알았는데 8년 만에 헤어지는 것을 보니까 마음에 안든다 바꾸어주라' 바꾸어 줬습니다.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 분이 썼던 수법은 우선 술을 먹고 떡이 되어서 가는 겁니다. 안 바꾸어 주면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누워서 뒹구는 겁니다. 그 다음날 또 가는 겁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지만 백화점의 이미지를 위해서 바꾸어 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거지를 부리면 바꾸어 준답니다. 백화점 사장은 이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줄까 연구한대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을 따로 만들어서 깨든지 부수든지 해서 풀도록 합니다. 장사꾼들이 손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 정도로 인내하고 참는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장사꾼들이 손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 정도 참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으며 또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야 하겠느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하지 않고는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온유해야 할 예를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뭔가를 해 보려고 하는데 맞는 말로 찬물 끼얹지 마세요. 아이들 공부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 공부해 가지고 뭐 되겠느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 아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은커녕 화를 돋우는 겁니다. 맞는 말이지만 쓰지 말아야 합니다.

친목을 다지자고 산에 갔습니다. 산에 잘 올라가서 밥 먹으면서 누가 한 소리를 합니다. “믿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것은 기도하고 성경공부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만날 등산만 다녀서 되겠느냐?” 맞는 말입니까? 싸우지 마세요. “우리가 언제 만날 왔느냐? 한 달에 한 번, 일 년에 두 번밖에 못 왔는데 어떻게 만날 이냐?”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도 때를 가려 가면서 해야지 모처럼 산에 올라갔는데 그런 말을 해서 찬물 끼얹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대체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 일하는 사람의 기를 꺾어 놓고 분위기를 식혀 버린다면 재고해야 합니다. 모두가 좋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더라도 죄가 아니면 다수결에 순응하고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똑똑하다는 말은 듣지 못할지 몰라도 그것이 참된 지혜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면 좀 느리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해 가면서 옳은 방법대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되던데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데 얼마나 설득하고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참으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사람이 원래 내 생각대로 잘 안 움직여 주는 것이라고 전제해 두세요.

‘저거 고쳐놔야 되겠다’ 싶다고 고쳐집니까? 함께 사는 부부도 잘 안 고쳐지던데요?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교회에서 ‘이거 한번 바꾸어 보자’ 해도 쉽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설득하고 기다려 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내 뜻을 못 알아듣고 다수결로 결정이 나면 순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처럼 몇이 어울려서 커피 한잔 한다고 호텔에 갔습니다. 호텔 커피 비싸대요! 모처럼 분위기 잡고 있는데 “이런 커피 한 잔이면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들을 한 달이나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래가 되냐?” 거기 앉아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가기 전에 그러든지 아니면 돌아와서 의논할 일 있을 때 그런 얘기를 꺼내든지 거기 앉아서는 그러지 마시고 분위기 맞추어 주세요. 아무 때나 맞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수고한다고 누가 ‘커피 한 잔 하실래요? 태워서 들고 왔는데요?’ 하니까 “난 초이스 아니면 안 먹어요.” 했답니다. 수고한다고 들고 왔으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평소에 커피를 안 마셔도, 마시는 시늉이라도 하는 것이 온유함이요 지혜로움입니다. 거기서 ‘난 초이스 아니면 안 먹어요!’ 말은 맞지요, 그러나 맞는 말이라고 함부로 써서 다른 사람의 수고로움에 초를 치고 찬물 끼얹는 일은 하지 마세요.

온유함이 지혜라고 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말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한마디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여기 표현을 빌리면 속에 다투는 마음이나 시기심이 있다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본문에는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어리석은 지혜가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배려한 지혜가 아니요 세상적이며 정욕적이며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함이 있음이니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은 지혜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지혜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스스로 잘났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그렇게 되었는데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실제로 능력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잘난 것, 탁월한 능력이 오히려 올무가 됩니다. 호랑이나 고양이가 짐승을 잡을 때 날카로운 발톱을 절대 안 드러냅니다. 고무같이 보드라운 발바닥으로 살살 집니다. 마지막 순간에 발톱을 드러내는 거죠.

만날 발톱을 꺼내서 들고 다니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발톱을 집어넣고 다니세요. 꼭 해야 되겠다 싶은 그 한마디를 위해서 물러설 줄도 알고 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분들이 팔자가 사나운 것은 이 발톱을 숨길 줄 모르고 드러내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인내와 순종보다는 반항과 싸움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싸우자 하고 나서는 것을 보면 뭔가 멋스럽게 보이지만 용서하자, 순종하자 그러면 어딘지 모르게 약해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남자가 싸울 때는 싸워야지' 이런 얘기는 그럴 듯해 보이고 '남자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참아줘야지' 이걸 약해보입니까?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지혜는 절대로 지혜가 아닙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는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것이 모난 부분입니다. 모욕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도 참고 돌아왔습니다. 잠이 잘 안 오죠? 이 말 한마디는 꼭 해줘야 하는데 안 했으니 사람이 좀 약해 보이고 비굴해 보입니까? 잠은 안 오고 화가 나겠지만 잘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혜롭게 했구나' 생각하십시오.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머리 좋고 학교 공부 잘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온유함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17절에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난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사야 33장 6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앞에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럴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지혜라는 말입니다.

공부 잘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재주가 사람 잘 사귀는 겁니다. 우리 애는 공부는 안 하고 온 동네 아이들을 다 끌고 다니고 친구가 너무 많아서 큰일 났다! 걱정되십니까? 그 능력 가지고 나중에 뭐 해요? 사업을 하든지 외환을 하든지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 친구들은 대체로 교수, 선생, 월급쟁이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은 잘 챙깁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르쳤던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났더니 불만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공부는 조금 못하지만 욕심이 있는 사람이 큰 일 하더라." 공부 잘 하는 친구보다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재주가 더 큰 재주라는 겁니다. 사람 잘 사귀는 재주보다 더 뛰어난 재주는 하나님을 잘 사귀는 재주입니다. 이 이상의 재주는 없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귀한 재주고 귀한 지혜입니다.

또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케 하는 겁니다. 시기와 다툼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일이 아니고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무슨 행사를 하든지 그 행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가는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성도간에 사이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성도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목적이 잘못된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배당을 잘 지어 놓고 교인들이 뿔뿔이 갈라져서 흩어지는 겁니다. 차라리 짓지 않는 것이 낫지요. 교회 행사를 힘들게 잘 했는데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네가 잘 했니, 내가 잘했니' 하고 다투고 서로 원망한다면 절대로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좋은 게 좋다'는 말은 밖에서 잘 쓰는 말이고 교회 안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은혜롭게 넘어가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잘못이 있는데도 넘어가자는 의미로 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지려면 잘못이 있을 때는 처절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잘못을 지적하더라도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흩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상처를 입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데 교회가 상처를 입지 않고 성도의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면서도 할말은 하고 잘못은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잘못을 지적하거나 차라리 덮고 지나가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주에 맨유라는 팀의 퍼거슨 감독을 인터뷰한 글을 읽으면서 참 대단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맨유가 리그 우승을 했습니다. 남은 한 게임에 저도 우승입니다. 남은 한 게임의 상대방이 18위를 하고 있는데 19, 20위는 리그에서 탈락한답니다. 엄청난 타격이랍니다. 그 18위 팀의 감독과 퍼거슨이 사이가 참 좋다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도 반드시 이기는 게임을 하겠다는 거죠. 최고 선수를 투입해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팀의 감독이 나하고 친한 사이지만 내가 이렇게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덤비는 것을 이해할 줄 믿는다'는 겁니다. 한국 같으면 글썽 안 그럴는지 모르지만 이미 우승을 했는데 죽자 살자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구 팬들에 대한 예의이고 정당한 길이라는 거죠.

서로가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관계를 해치지 않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꿈같은 얘깁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고 안되겠다 싶으면 차라리 은혜로 덮고 넘어가는 것이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반복되면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의 열매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게 한 며칠 지나면 없어질 것이라면 힘이 빠지지요. 오래가는 것,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해서 정말 잘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이 땅에서 재미있게 살지는 못했다고 친다면 누가 이긴 거죠? 이 땅에서는 이 분이 이겼는지 모릅니다. 그 분은 50년을 이기고 영원히 지는 겁니다.

영원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지혜롭게 살았다고 해도 그건 지혜로운 처사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부친이 포병대장으로 계실 때에 부마사태의 계엄사령관으로 출동명령을 받았습니다. 발포하라는 명령을 받은 거죠. '내가 발포명령을 내리면 나와 내 자식들은 영원히 한국에서 살지 못한다' 그래서 끝내 발포명령을 안 했습니다.

결국은 전역을 당했죠. 그 덕분에 그 분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때 발포명령을 내렸으면 모르긴 몰라도 별을 달았을 터이고 진급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찌면 국민에 대한 반역죄로 처단이 되었을지도 모르고 그 자손들은 이 땅에 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분이 그 순간에 먼 훗날까지 본 겁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50년을 내다보며 헌신하는 것보다 그 이후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헌신하는 것이 의의 열매를 얻는 것인데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겁니다. 내가 좀 참고 내가 좀 인내함으로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이게 영원한 겁니다. 이게 의의 열매입니다. 이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내가 오늘 참고 내가 억울하지만 수그러들 수 있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맞는 말이라도 한 영혼을 실족케 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다 싶으면 맞는 말이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꼭 말해야 되겠다 싶으면 밥부터 사세요. 밥 사고 좋은 얘기 많이 하고 거기에 꼭 해 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냥 조금만 덧붙이세요. 덕을 세우지 못하면 맞는 말이라도 하지 마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똑똑한 여자들이 팔자가 세다는 것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온유와 겸손이 공부 잘 하고 똑똑한 것보다 실제로는 더 똑똑한 겁니다.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모이면 단합이 잘 안됩니다. 서로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단합이 잘 안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모래알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국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똑똑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래알입니까? 진흙덩어리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모래알이어야 합니다. 모래는 개인적으로 딱딱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 모래에 자갈이 조금 섞이고 시멘트가 적당하게 부어져서 굳어지면 돌보다 더 단단한 콘크리트가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탁월하고 능력이 있는데 여기에 적당하게 시멘트가 부어져서 콘크리트가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 생각합니다. 진흙덩이보다 더 단단한 콘크리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공부 잘 하는 것을 최고의 지혜로 여기고 좋은 점수 따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여깁니다.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목표는 잘 세워놓고 실상은 오로지 점수에만 매달리는 것이 우리 교육 현실입니다. 혹시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것 아닌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면서 혹시 말만 그러고 있는 것 아닌지 말입니다.

여러분, 학교 공부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느라고 학교 공부는 좀 손해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된 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로만 그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온유함이 참된 지혜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